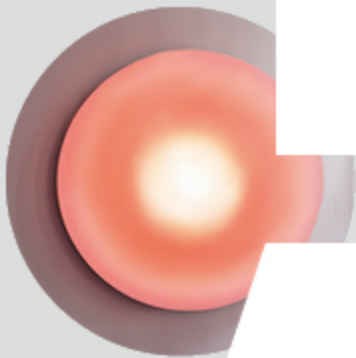




작품과 함께 살아가는 뉴욕 아티스트들의 라이프 스타일



더 아티스트

지음 강희경 Christina H. Kang

사진 강재석 Jason River

THE ART ISTS



**THE
ART
더 아티스트 ARTISTS**



뉴욕 아티스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의 진정한 인사이트 스토리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이들이 모여 전쟁 같은 경쟁을 치르는 뉴욕. 다양한 문화가 마치 커다란 펠딩팟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은 이곳을 무대로 작품세계를 펼치는 아티스트들의 삶을 담았습니다. 그들의 집, 작업실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생생한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기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뉴욕 미술계에 몸담은 오랜 시간 동안 저는 'WHY'라는 물음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컬렉션하고 함께 살아가는 10명의 뉴욕 컬렉터들의 이야기를 담아 <더 컬렉터스The Collectors>라는 첫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WHY'에 이어 'HOW'라는 물음을 가지고, 뉴욕의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술의 중심이라 불리는 뉴욕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떻게 생존하고 성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예술을 가까이 하고, 느끼고, 공유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예술작품 속에 담긴 아티스트들의 숨겨진 뒷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역시 많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술 수집가, 취미로 예술을 즐기고 싶은 아트 러버,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 있거나 또 미래에 전공하고 싶은 학생, 평생 예술에 대해 공부하시고 싶은 분, 미래의 아티스트를 꿈꾸는 이, 작가, 예술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 모두 <더 아티스트The Artists>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아트 컬렉션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10명의 아티스트들은 저에게 있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진지한 예술가이자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기에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간혹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의 경우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존경하는 딜러이자 친구로, 좋은 시간과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며 점점 특별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그러한 재미난 스토리를 뉴욕이라는 무대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했기에 이렇게 책으로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아티스트>는 베일에 싸여 있던 뉴욕 아티스트의 집, 스튜디오로 여러분을 초대해 그들의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생존경쟁이 심한 뉴욕에서 예술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마법 같은 재료들을 발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개인 공간에 초대해 주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준 멋진 아티스트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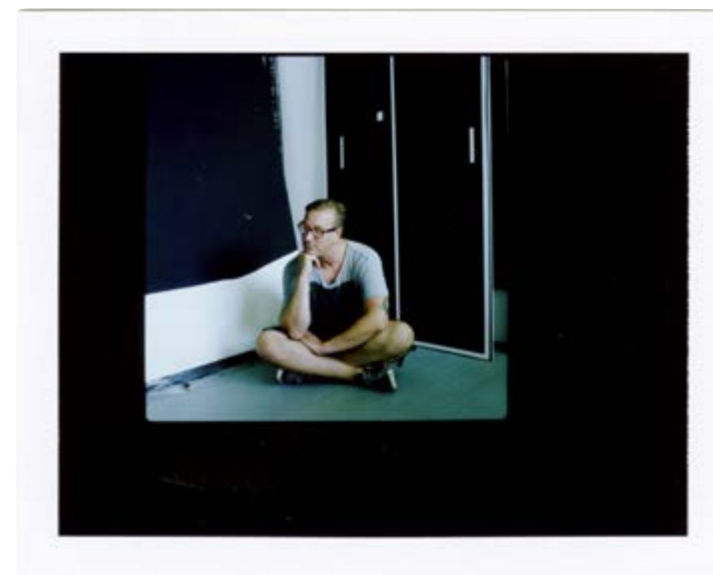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책을 만드는 과정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분들도 무대를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라 직접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나아가 무대 커튼 뒤에 숨겨진 아티스트들의 진솔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하는 멋진 경험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6. Rob Wynne — p.92
시가 흐르는 거울에 머문 시선



7. Cindy Workman — p.110
크리에이티브의 도시에서 피어나는 열정과 도전



9. Michael Bevilacqua — p.142
세상과 교감하는 예술가의 작업실



8. Grimanesa Amoros — p.126
자연을 닮은 유연한 삶의 흔적



10.
Kellyaan Burns — p.158
흐르는 시간에 침식당한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

SPECIAL INTERVIEW — p.177
Jaiseok Kang a.k.a Jason River
모든 것이 사람이다

ARTIST BIOGRAPHY — p.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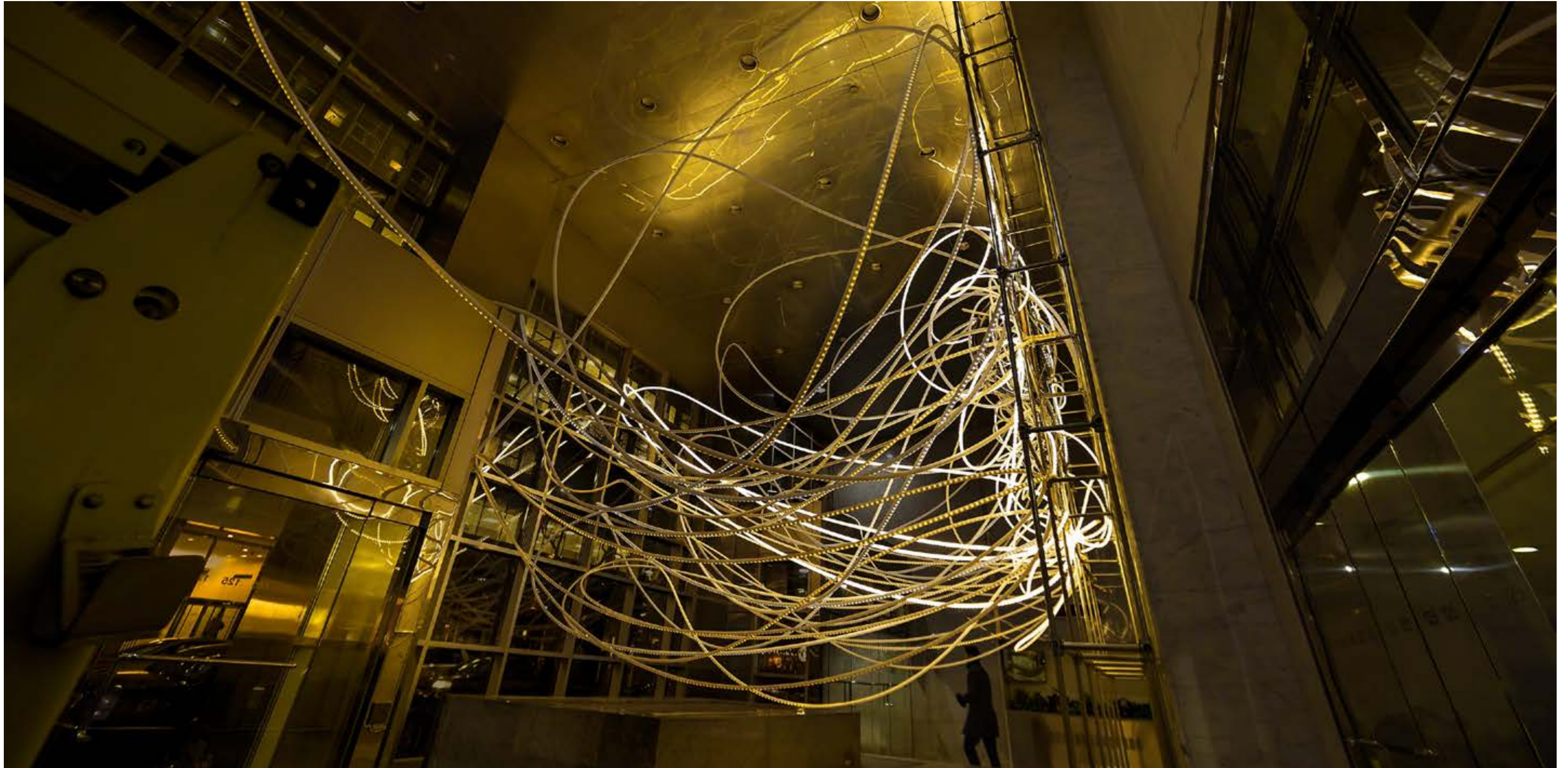
Grimanesa Amoros

자연을 닮은 유연한 삶의 흔적

그리마네사 아모로스는 매우 유기적이고 자연적 형태를 띠는 동시에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을 만든다. 조각이나 설치, 비디오, 조명, 사운드를 통해 우리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만들며, 사회 역사, 과학적 연구, 비판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로부터 영감을 얻어 작업한다. 아모로스는 NEA 펠로우십(워싱턴 DC), NEA 아트 인터내셔널(뉴욕), 브롱스 뮤지엄의 AIM 프로그램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남미에서 전시를 열었으며, 최근에는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 타이완 국립미술관, 베이징 아트 뮤지엄, 뉴욕 트리베카 이세이 미야케, 아모리 쇼가 기획에 참여한 타임스 스퀘어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에서 개인전을 열거나 공공적 성격의 작품 활동을 펼쳤다.

그녀와 나의 인연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해 인사를 나눈 사이라기보다는 갤러리나 페어에서 스쳐 지나가며 얼굴을 익힌 사이이기 때문이다. 우연한 만남이 몇 차례 반복되자 자연스럽게 나는 그녀의 작품이 궁금해졌고, 그렇게 만나게 된 그녀의 작품세계는 매우 놀라웠다. 조각이나 설치, 비디오, 조명, 사운드까지 다양한 매체들과 작업한 작품에 빛을 도입함으로써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녀의 작품 속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가 담겨 있다. 현재 그녀와 나는 작가와 팬으로서, 또 친구로서 유쾌한 만남을 지속하며 이제는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함께 하고 있다.





Title *BREATHLESS MAIDEN LANE*

Year 2014–2015

Credit Courtesy of the artist and Time Equities, Inc. Art-in-Buildings, Photo by Grimanesa Amoros Studio

뉴욕에서 시작된 아티스트로서의 삶

페루 리마 출생인 그녀가 어떻게 뉴욕에서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됐는지 물었다.

“페루에서 미술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어요. 둘 다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었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미술 계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그 분야를 주제로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은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어요. 반면 예술에 대한 열정은 늘 밤늦게까지 저를 작업실에 붙잡아 두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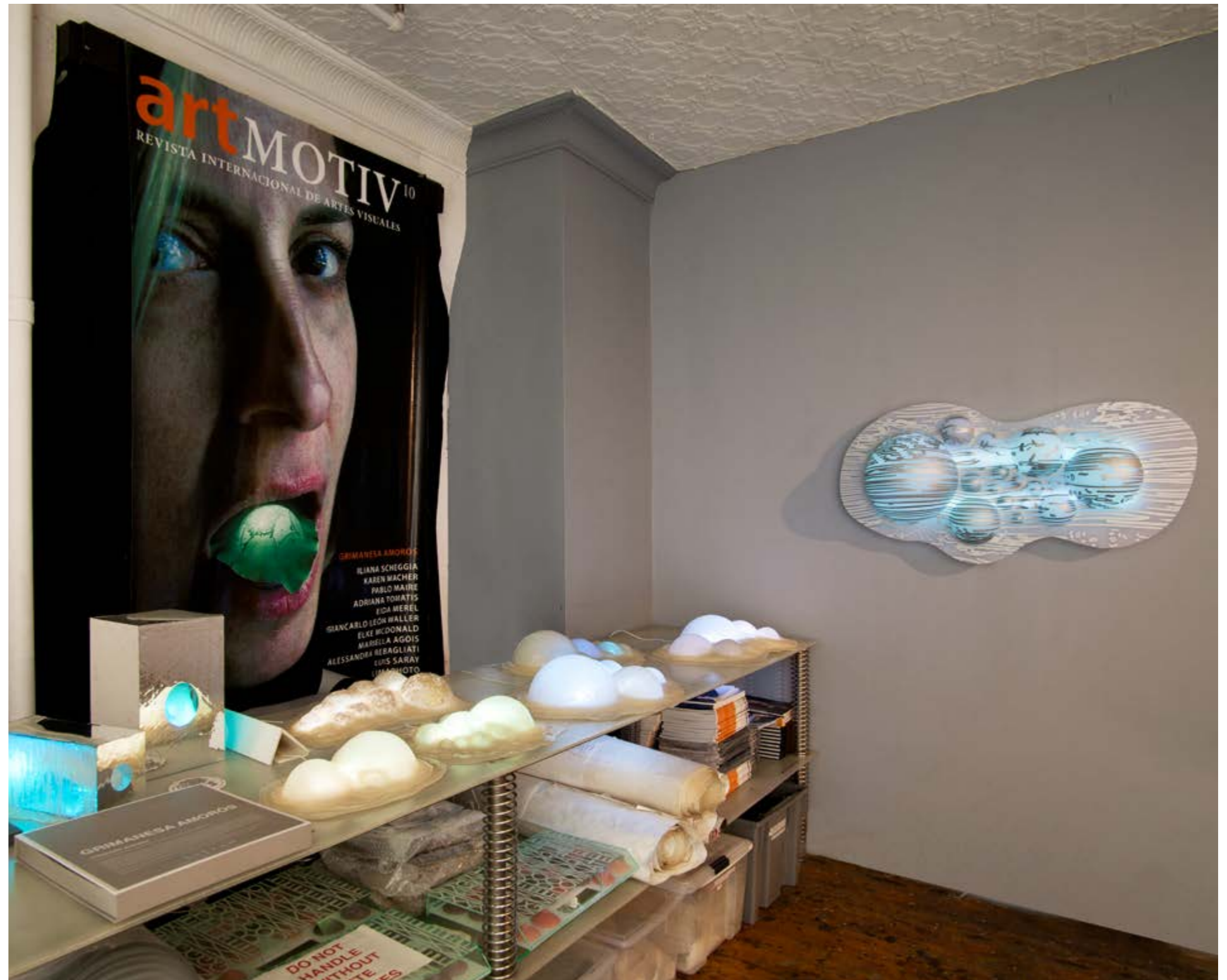
그리마네사는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새로운 소재들, 예를 들면 음악이나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기술들을 접목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다고 했다. 각각 다른 종류의 재료들을 섞어 보는 것, 또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재료들을 탐험한다는 일에 늘 매료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을 안고 뉴욕에 왔어요. 영화에서 보던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특히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등에 관한 것이 강했죠. 뉴욕에 와서 작업을 하면서부터는 타임스퀘어를 배경으로 작품을 설치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그 꿈은 2011년도에 타임스퀘어에 설치했던 ‘우로스 하우스’로 이뤄졌죠. 그렇게 꿈처럼 뉴욕으로 온 후 떠나지 않고 이곳을 현재 제 삶의 주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품의 영감이 된 페루에서의 유년시절

그녀의 작품은 경험에서 우러난 주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작품에서 페루를 느낄 수 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다.

“맞아요. 제게 있는 페루인의 뿌리와 성장 배경은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현재는 뉴욕에 살고 있지만, 페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경험이 제 작품의 개념적 기초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리마에는 넓은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에서 보낸 유년시절의 좋은 추억이 많아요. 포도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적 형태를 연구하기도 했어요. 포도송이들이 모여 있는 모양이나 잎이 무리 지어 있는 형태 같은 것들이죠. 아마도 제 작품에 유독 둥그런 형태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작품 중 ‘우로스’ 시리즈는 페루의 남동부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의 우로스 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에요. 잉카 제국 이전의 우로스 사람들은 티티카카 호수에 떠있는 인공 섬들에 살았어요. 집이나 선박 등을 토토라 갈대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살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우로스’ 시리즈를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죠. 조명을 통해 선명하게 보이는 조각들은 이 섬의 전통적 기법들을 형상화하여 반영한 것이죠.”





작품에 담긴 빛의 의미

그리마네사의 작품에는 조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제부터 조명을 작품에 쓰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아버지와 오빠가 엔지니어 회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 조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작품에 접목하는 것에는 아마 가족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조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게 익숙한 소재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정 시기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했지요. 작품에 빛을 도입함으로써 마치 마법과도 같은 분위기를 입힐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빛은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 그녀의 작품은 빛과 함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듯 느껴진다. 빛이 작품에 담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작품에 빛을 도입함으로써 마치 마법과도 같은 분위기를 입힐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공 예술품을 설치하기 위해 여행을 자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자연 경관과 조명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아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 작품을 통해, 페루와 세계 곳곳에서 얻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 조명은 세심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각 조각품과 설치되는 공간에 맞춰 빛을 연구하고 어떻게 관람자들이 움직일지에 대해 연구하며, 사람들이 일상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작품과 소통할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소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나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 장소와 어울리는 작업을 생각해 보고 그곳과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는 것은 질리지 않는 저만의 재미있는 놀이자 일이죠.”

뉴욕의 가장 어린 컬렉터가 된 딸

그리마네사에게는 딸이 한 명 있다. 사석에도 항상 딸에 대한 사랑을 늘어놓는 딸바보 엄마이기도 하다. 아티스트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녀의 딸은 예술을 어떻게 접하고 있을까?

“딸은 94년에 창조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죠.(웃음) 사미엘은 4살 때부터 작품을 컬렉션하기 시작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저와 함께 갤러리, 스튜디오를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작품을 보는 자신만의 취향이 생겼더군요. 갤러리에 가서 전시를 볼 땐, 작품이 팔리면 옆에 붙여두는 빨간 스티커를 참 좋아했죠. 자기도 언젠가 작품을 사겠노라며 열심히 용돈을 저축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11살에 3,500불짜리 작품을 구입했는데, 이 때문에 「뉴욕타임즈」에 가장 어린 컬렉터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비즈니스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딸은 작품을 사랑하고 작가를 지지하는 컬렉터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어요. 엄마가 작가이기 때문에 자신도 작가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삶을 꿈꾼다고 말하기도 하는 아주 속 깊은 딸이랍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는 비결

엄마와 작가로서의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녀만의 비결은 무엇인지 물었다.

“맞아요. 둘 사이에 균형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의 경우 우선순위가 명확했어요. 아이를 위한 스케줄을 제 작업보다 항상 위에 두었어요.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딸과 함께 다니기도 하고요. 아이가 한국을 참 좋아해서 작년에 함께 오기도 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면,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 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 준다는 점일 것 같아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로서의 역할보다는 친구로서의 역할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즐겁습니다.(웃음)”



벽면의 작품은 작가의 2008년 작 *Aurora*



그리마네사의 다양한 아트 컬렉션이 전시된 거실 한 편



앤티크한 촛대 위의 작품은 *Uros Island*

그리마네사의 2009년 작 *Meat Market*

소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나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 장소와 어울리는 작업을 생각해 보고 그곳과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는 것은 질리지 않는 저만의 재미있는 놀이이자 일이지.

충실한 하루에서 발견하는 행복

같은 여자로서 명쾌하고 솔직한 답변을 내놓는 그녀가 참 대단해 보였다. 열정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녀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은 어떠한 모습일까?

“저는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작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좋다’ 혹은 ‘싫다’라고 느낄 테지만, 결과로 느껴지는 평가보다는 무관심하게 내 작품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품을 통해 누군가의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리마네사는 2014년 1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시계탑에 작품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는 뉴욕 타임스퀘어 프로젝트처럼 특정한 장소와 소통을 일으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작품은 어떠한 모습인지 물었다.

“작품에 LED조명을 시도했던 것처럼 다양한 매체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예요. 소재에는 한계가 없고,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거든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결합하고, 그 특성이 한데 어울려 독특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기에 당분간은 조명과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설치미술에 집중하며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작 *Uros*가 전시된 거실 전경

Christina H. Kang's Note

그리마네사는 이 시대의 모든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여성이다. 엄마로서의 삶이 그렇고, 프로페셔널한 작가로서의 삶이 또한 그렇다. 다양한 소재와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케일이 큰 작품을 선보이는 그녀는 자신만의 작품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모든 열정을 다해 한계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헤쳐 나갔기에 뉴욕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오늘의 그녀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마네사는 예술계의 진정한 원더우먼이 아닐까?

ARTIST BIOGRAPHY

그리마네사 아모로스
Grimanesa Amorós

페루 리마 출생으로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NEA 펠로우십, NEA 아트 인터내셔널, 브롱스 뮤지엄의 AIM 프로그램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에서 전시를 열었으며, 최근에는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 대만 국립미술관, 북경 아트 뮤지엄, 뉴욕 트라이베카 이세이 미야케, 타임스퀘어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에서 개인전과 공공미술 전시를 선보였다.



Title 홍콩 Art Basel 때 Four Season 호텔에 설치된 *Golden Connection* 작품 전경

Year 2013

Credit Courtesy of the artist and Harper's Bazaar Art China, Photo by Grimanesa Amorós Studio



THE COLLECTORS 더 컬렉터스
강희경 지음 | 강재석 사진 | 216쪽 | 정가 23,000원

예술을 사랑하고 작품과 함께 살아가는 뉴욕 컬렉터들의 라이프스타일

뉴욕 미술 시장에서 아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패러다임 아트 컴퍼니 강희경 대표가 아티스트, 컬렉터, 아트 딜러들 중 취향이 명확하고 독특하게 반영된 컬렉션을 만들어 가는 10명의 컬렉터들을 인터뷰하였다. 컬렉터들은 소유를 목적으로 컬렉션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소장한 것을 공개하여 공유하는 것을 미덕으로 꼽고 있다. 다양한 컬렉션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FASHION WEEK 패션 위크
사진 남현범 | 304쪽 | 정가 28,000원

패션위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관한 기록

패션위크의 엉뚱한 스트리트 패션 사진들을 모은 사진집이다. 패셔너블한 사진도 있고, 역동적인 순간을 기록한 것도 있고, 화이트 있는 사진과 서정적 느낌의 사진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 남현범 작가가 렌즈를 통해 바라본 특별한 모든 시선을 담고 있다. 사진으로만 이야기를 전달하고픈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과감히 글을 덜어냈고, 순서 역시 목차로 구별하지 않고 남 작가의 의도대로 순서를 정했다.

※Portrait Edition과 Snap Edition 두 종류 표지로 제작되어 원하는 표지 사진을 선택할 수 있다.



Home 홈
로버트 & 코트니 노보그래츠 지음 | 최다인 옮김 | 320쪽 | 정가 20,000원

라이프스타일이 보이는 홈 인테리어

유명 디자이너 부부 로버트와 코트니 노보그래츠의 독창적인 인테리어를 소개한다.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셀러브리티의 집은 물론 미국 전역을 돌며 작업한 인테리어를 HGTV에서 '노보그래츠 부부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영하고 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6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 단순한 실내장식이나 수납공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집 전체를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다. 그중 가장 독창적인 20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THE ARTISTS

예술을 사랑하고, 작품과 함께 살아가는 뉴욕 아티스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의 진정한 인사이드 스토리

<더 아티스트>는 베일에 싸여 있던 뉴욕 아티스트의 집, 스튜디오로 여러분을 초대해 그들의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생존경쟁이 심한 뉴욕에서 예술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마법 같은 재료들을 발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개인 공간에 초대해 주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준 멋진 아티스트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벽을 넘어 뉴욕 아트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강희경. 그가 전하는 뉴욕 아티스트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는 독자들에게 현대 예술의 의미를 감지케 하는 기회는 물론, 별난 예술가들의 특별한 삶을 훑쳐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이 책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작품과 함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술이 감정적인 것은 아티스트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이 창조하는 작품만큼이나 아름답고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

김달진미술연구소장 **김달진**

예술과 삶, 삶과 인간의 관계, 소통과 교감은 언제나 강희경이 내세우는 중요한 화두이다. 많은 사람들의 예술적 경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녀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아티스트 **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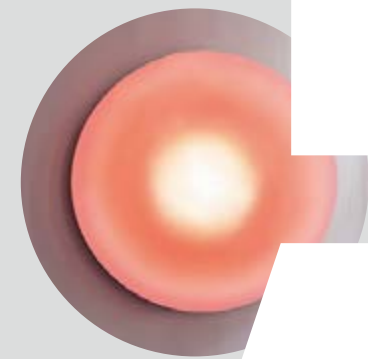


정가 20,000원



지음 **강희경** Christina H. Kang
사진 **강재석** Jason River

작품과 함께 살아가는 뉴욕 아티스트들의 라이프 스타일



지음 **강희경** Christina H. Kang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공부한 후, 뉴욕대학교 대학원 New York University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하였다. 1999년, 아트 컨설팅 회사인 패러다임 아트 컴퍼니 Paradigm Art Company를 뉴욕 맨해튼에 설립하며 15년 이상 뉴욕 미술 시장에서 아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을 넘어 국내외 주요기업, 미술관, 갤러리 및 개인 컬렉터를 위한 아트 관련 어드바이징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2013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국제전에서 '예술이 된 가구' 전시 기획을 맡았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겸임 교수로 있다.



사진 **강재석** Jaiseok Kang a.k.a Jason River

서울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활동하는 사진가이다. 한성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2003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학과를 거쳐 2006년 뉴욕시립대학교인 브루클린 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였다. 2009년엔 실버마인 길드 아트센터 Silvermine Guild Arts Center에서 주관한 전미 50인의 판화가에 뽑혀 유일한 한국작가로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듬해엔 복미 판화 비엔날레에 발탁되어 더 덴포스 뮤지엄 오브 아트 The Danforth Museum of Art에서 전시, 현재까지 사진과 판화 작업으로 30년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뉴욕과 다른 도시에서 열었다.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며 퀸즈에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상업사진뿐만 아니라 개인 작품활동과 다른 예술가들과의 꾸준한 합동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